

#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10, 요한복음 8장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예루살렘의 긴장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 8:12-59).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관한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소개에 대한 초기 비디오에서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본문의 차이와 기타 문제에 대해 조금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요한복음의 주요 본문 변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간음한 여인의 일화인 이른바 간음 페리코프(Pericope 간음녀)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복음 8장의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고 연구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 장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분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다시 볼 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팎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딘가에서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체포자들을 예수님을 위해 보내기 위해 성전 경내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멋진 항공 사진이 있는데, 그 당시 사원 부지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적어도 외부 플랫폼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당국은 그분을 잡으려고 체포 부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많은 반응을 보이며,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합니다. 즉, 귀신 들린 미치광이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군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이 끝나갈 무렵, 공의회가 모여서 예수를 제거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적어도 예수의 의견을 공정하게 들어보자고 말하면서 예수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는 본질적으로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외쳐집니다. 오하이오 남부 출신인 나는 멍청한 촌놈이라는 표현을 듣는 데 익숙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어떤 때는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니고데모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언덕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었다는 점만 빼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이 끝나갈 때 우리는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경멸하는 말을 읽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살펴보세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버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납치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무 걱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 무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 7장 52절 8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몇 사람은 실례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 뭔가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말했고 마침내 고발자들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왼쪽으로.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이제 가서 죄의 삶에서 떠나십시오.

8:12 예수께서 다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7장과 52절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로의 흐름을

끓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힌다고 생각합니다. 7:52부터 8:12까지.

7:53 자체가 꽤 이상해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시점에는 그림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8:12,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8, 13장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것은 본문 전통의 주요 부분이고 아마도 그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데 많은 논쟁이 있는 요한복음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이제 그 작업을 수행하는 데 몇 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1658년 그림에서 예수와 함께 여기에 있는 여인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이미지가 내가 온라인에서 본 그림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온라인에서 직접 찾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소 어두운 이미지이다.

나는 그것이 렘브란트가 추구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물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과 흐느껴 울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녀 위에서 계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그 구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본문상 논쟁이 있는 구절이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본문 학자들이 외부 증거라고 부르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절은 더 오래된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더 최근의 것들, 아주 많은 최근의 것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본에서는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그 중 일부는 누가복음의 여러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외에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는 한 곳은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일종의 부록입니다. 일부 사본에는 이 내용이 다른 곳에 포함되어 있으며 요한복음의 이 시점에는 오벨리스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백에 두었습니다. 특히 원고를 쓰는 사람이 나중에 넣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되면 넣을 공간을 남겨두기 위해 페이지를 비워 두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던 한 원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사본에 넣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지만 그들은 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John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언어는 실제로 요한의 전형적인 말하기 방식의 일부가 아니며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서술적 연속성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이 구절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들리며, 그 구절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동정적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원래 요한복음의 일부로서 권위가 의심스럽다고 느끼는 학자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이 원래 요한복음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약성경 이후 교회에 떠돌던 예수에 관한 확실한 전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작성되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대 역사를 통해 고대 사람들에 대한 전통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일반적으로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 전통은 수세기 동안 전해졌습니다. 예수에 관한 모든 구전 전통이 신약성서에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의 확실한 말씀의 표시를 담고 있으므로 원래는 요한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의 일부일 것입니다.

Net Bible에 이에 대한 흥미로운 요약이 있습니다. 성경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넷성경을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온라인입니다.

Net은 New Electronic Translation을 의미하며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문법에 대한 매우 유용한 참고 사항과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지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53부터 8:11까지의 유용한 메모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약성경의 다른 곳인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텐트를 만들었고,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찾아보면, 복음서 어디에서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받아들인 예수의 전통이지만 복음서 저자 중 어느 누구도 예수에 관한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울의 입에서 발견했고, 누가는 그것을 사도행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다소 비슷합니다. 비록 그것이 실제로 요한복음 원본의 일부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를 따르는 죄인들을 용서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로 넘어가서 다시 요한복음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8장 12절부터 59절로 가십시오. 요한복음 7장 14절 이후로 우리가 읽어온 소란스러운 내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중반부터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명절 마지막 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성령에 관한 위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로 인해 종교지도자들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는 공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의 서술 흐름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책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빛의 이미지를 다루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8장 2절은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는 아니지만 빛의 이미지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5장에서 처음 접했던 동일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은 그가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절부터 18절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내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간증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서도 자기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 있는 문서로 그들을 정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는 두 증인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증언하는 사람이다.

나의 또 다른 증인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큰 토론을 가져오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뜰에서 가르치실 때 헌물 놓는 곳 근처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제물이 놓인 곳 근처의 성전 뜰에서 그것이 어디에 있었을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바깥쪽 가장자리는 이방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 남자와 여자 모두가 올 수 있는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남자들이 제물을 가져갈 수 있는 뜰로, 그리고 제사장의 뜰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장소가 제물을 가져가는 안뜰 중 하나였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그 특정 지역, 아마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머물도록 허용된 뜰 지역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구조를 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의 관점에서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에 대해 충분히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이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 자신의 증언의 타당성에 관해 바리새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자신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내가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당신은 올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가 자살하겠느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8장 22절에서 그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아래에서 왔습니다.

나는 위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참으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24절에 나오는 '나는 그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인

예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그리스어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할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도 대화 중간에 이런 내용을 보니 흥미롭네요.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당신은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아직 모른다면 아마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27절)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릴 때 요한복음 3장 14절과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은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그인 것과 스스로 아무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가 받고 있는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다소 어두운 이야기 속으로 작은 빛의 광선이 튀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가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8장 30절. 잠시 동안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는 말을 보자마자 요한복음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 너희가 내 가르침을 붙잡는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 새로운 신자들이 그런 말을 받아들일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불길한 예감으로 반응하고 스스로에게 '좋아, 내 생각엔 그가 말하는 것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 그가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33절에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 전혀 그런 종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주인, 스승에게 반응하는 것은 다소 이상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가 말해야 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는 8장 30절을 너무 장밋빛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른 비디오의 일부를 강조하면서 추적해 보면 2장에서 처음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표적을 처음 본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왔던 사람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에 대한 일종의 믿음, 그분을 니고데모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존경하거나 그분을 일종의 선지자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여기 33절에서 했던 것처럼 그와 논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에게 있어 참된 진정한 믿음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어떤 의미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인정한 유대인들 사이에 점점 더 적대적인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유한 자손이라 하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가족 중에 영구적인 자리가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아노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구의 아버지가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래된 속담처럼 그들이 어느 블록의 칩인지에 대한 이어지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은 아브라함과 같지도 않고 행실도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41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잠시 후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41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불법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42절,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 왔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그는 바로 나와서 마침내 44절에서 너희는 마귀인 너희 아비에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자 하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를 지키지 아니한 자니 그에게는 진리가 없음이라. 그는 거짓말할 때 모국어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들은 방금 30절에서 그분을 믿었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구절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를 믿은 유대인들이 4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귀신 들려라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7장 끝에서 공의회가 니고데모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다시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갈릴리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귀신 들린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린 것이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보다 더 나쁜지, 아니면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인 것은 확실히 매우 나쁜 일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임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미끼를 물지는 않았지만, 나는 악마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나를 모욕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귀신들렸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절이 여기서 더 나쁨에서 더 나쁨, 최악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58절에서 그들이 돌을 집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면 내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부르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시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해하고 생각한 씨앗 원리는 창세기에서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이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것처럼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기에서 실제로 온 세상을 축복할 자신의 허리에서 나온 누군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그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7절에서 당신은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정말 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진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일부 번역판에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을 추가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합니다. 이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 경내에서 피하시니라.

따라서 이 장을 마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비한 출발 중 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음에 틀림없다고 거의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해피엔딩이 없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논쟁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잘못된 머리, 즉 그분에 대한 완전한 부정주의의 정점에 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고 그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우리는 여기에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하고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며 중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분은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부터 24절까지는 큰 논쟁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는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7, 28, 29절에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등을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를 죽이려는 결과가 7:30으로 이어집니다. 7:33, 34에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만 이에 대한 반응은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그는 어디로 갈 생각인가?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또 다른 짧은 가르침, 아마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중심 가르침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곳에 파견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언어. 7장과 8장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논쟁은 요한복음 7장의 끝 부분에서 유대인 공의회에 의해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7장의 끝 부분에 있는 일종의 경첩과 같습니다. 토론이 끝날 때까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적어도 예수께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이성의 유일한 목소리인 공의회에서의 논쟁은 이 모든 것의 일종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8장 13절부터 19절까지에서 그의 간증을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잡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8장 21절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가리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내가 가면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이로 인해 22절부터 29절까지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겠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며 30절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 다시 한 번 새로운 가르침인 31절과 32절을 볼 때까지 듣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에 매달리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는 아브라함과 그의 영웅이 누구의 자녀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8장 5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으나 예수는 그들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7장에서 일어난 모든 소동, 모든 혼돈, 7장 도처에 퍼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다른 관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장은 읽기에 그다지 즐거운 장이 아닙니다. 8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은 여기저기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8장 30절은 거의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에 대해 약간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39절부터 8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조차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장이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의 일부 주석적 문제는 물론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과 어둠에 대한 광범위한 이미지의 일부.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더 깊이 논의를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낮과 밤도 이 논의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그 밖에도 낮에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밤에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종의 작동 방식입니다. 빛과 어둠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둠 속에 빛을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9장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살며 빛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2장과 49장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14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초막절 또는 초막절에도 미슈나에서 햇불 의식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초막절은 다시 5장, 3장, 4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자료도 있습니다. 말하고 있다.

이 모든 빛과 어둠의 상징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윤리적 이원론을 묘사합니다. 그 이원론은 8장이 끝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고, 아브라함은 너희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주석적 문제는 예수와 그의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찍이 5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행할 뿐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8장 전체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대리인임을 계속해서 주장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을 이 땅에서 단지 이루실 뿐이므로 아버지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자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분,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가장 분명한 질문은 예수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를 믿었던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신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십니까? 좀 잘못된 것 같죠? 어떻게 둘 다 될 수 있나요? 분명히 우리는 진정한 신자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방식으로 이 장, 특히 31절의 경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믿음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의 행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행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실재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아마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바울의 말과 야고보서 2장을 합쳐서 결국 같은 페이지에 있고 본질적으로 같은 말, 즉 우리가 행하는 일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에 이르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 주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즉시 반항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아무 관련도 맺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실제로 그분의 제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2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2장의 끝 부분에 있는 해당 구절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지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많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예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여행에서 어떻게 많은 표징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이 구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고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소 모호한가요? 다행히도 우리에게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일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정확히 그 선을 지키지 않는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적어도 지금은 원칙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진정한 포도나무로 묘사하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사용하신 1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 아마도 하나님의 불충실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구별될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가 포도원을 경영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너희가 가지치기를 받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타지리라.

그래서 그 매우 냉혹한 언어는 아마도 신학자들이 인내의 교리라고 부르는 것의 필요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에 더 가까운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본문을 접할 때 참된 신자들은 구원을 잃는다고 믿으며, 우리가 종종 칼빈주의 진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결코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작하다. 그들은 단순히 믿음을 공언했거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학적으로 분석할 때 어느 쪽의 견해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에 대한 수업이고 요한에 대한 믿음의 복잡성과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성도의 견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8장 끝부분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방식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혹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어쩌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하게 만든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돌을 던지는 것은 신성모독에 대한 형벌이었고, 예수님은 이전에 5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비슷한 일로 비난을 받는 몇 가지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내가 태어났어, 내가 그들에게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토록 불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순히 장의 끝 부분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8장 24절에서도 이미 암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내가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8장 28절에도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의 장을 마무리하는 58절에서도 나는 있느니라. 나중에 John의 몇 가지 진술도 이 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3장 1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배반자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이르시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그의 배반이니라 이는 너희로 내가 유다인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네가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그 말은 너무 강력해서 뒤로 넘어져 땅에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어로 ego, eimi, I am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힘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의 본문인 eheyeh asher eheyeh, I am who I am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신명기에서 한 번,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발견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이다'라는 텍스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동사가 없는 '아니 후(ani hu), 나는 그 사람입니다. 문자 그대로 나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이 기만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구약성서의 아니후(ani hu) 텍스트, I am he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그리스어로 ego, eimi로 번역되었습니다. 구약성서의 이러한 아니후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가장할 뿐이며 실제로 그와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조심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텍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구절을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과 39절, 아마도 첫 번째 본문일 것입니다. 여기 문맥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하실 것이며(36절), 그의 종들의 힘이 쇠하여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음을 보시는 때에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노예든 자유인이든. 그가 말하기를 이제 그들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신한 바위는 거짓 신들이 될 것이다. 신들은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포도주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일어나게 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이 거짓 신들을 따른다면 그들로부터 실제로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약간 비꼬는 말이며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제 진정한 매력은 바로 나 자신이 그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는 신이 없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리라.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39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인 줄 알라. 따라서 이사야 41장과 4절, 43장, 10절에 나오는 몇 구절도 이 점에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이사야 4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흐름을 잡아보자.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이 힘을 새롭게 하게 하여라. 그들이 앞으로 나와서 말하게 하십시오.

심판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충동하여 의로 불러 자기에게 봉사하게 하였느냐? 그분은 나라들을 그에게 넘겨주시고 왕들을 그 앞에 복종시키십니다. 그분은 칼로 그들을 티끌로 만드시며, 활로 바람에 날리는 겨로 만드십니다.

그는 그들을 쫓아가며 이전에 발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상처 없이 계속 나아갑니다. 누가 이 일을 하였고, 이 일을 해냈으며, 태초부터 세대를 불러냈느냐? 나 곧 나는 여호와니 그 처음과 마지막도 내가 그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계략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장엄한 진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도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 이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내가 여호와라. 그들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끝부분에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으로 말하는 구약의 일련의 본문을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분은 열방의 가짜 신이 아니라 홀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실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 요한의 서문에서 자신이 선재하시는 하나님, 암묵적으로 신성하신 선재하시는 인격으로 묘사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요한과 동일시되는 여러 본문이 있으며,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의심하는 도마가 마침내 예수님의 손과 발에 흔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말로 절정에 이릅니다. 도마는 그들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크게 놀라고 원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완전히 회개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른 구약의 본문 중에서 이사야서 48장 12절을 반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여,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 말을 들으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 곧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예루살렘의 긴장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 8:12-59).